# 원조(元祖)영광 챙기기

## (요17:1~10)

1.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2.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4.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6.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7.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8.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9.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10.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원조(元祖)영광 챙기기>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원조(元祖)영광', 원조라고 하는 말을 굳이 한 이유는 유사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이비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
원조영광을 챙기는 것입니다.
내 영광 내가 챙기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좀 어감이 자연스럽지 않지요? 익숙하지 않지요?
아니, 우리의 삶은 내 영광은 내가 챙기더라도 설교시간에 내 영광 내가 챙기기라는 말을 노골적으로 한다는 것은 잘 적응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맞아요, 내 영광 내가 챙기는 것, 영광 중에서도 원조영광을 챙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영광스러움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내가 내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속해있지 않다면, 믿음에 올바르게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17장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앞에 둔 기도라고 하면,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생각하는데, 이 겟세마네의 기도와 요한복음이 기록한 이 기도, 흔히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도와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겟세마네의 기도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바라보면서 하시는 기도이고, 이 17장의 기도는 십자가라는 것이 시간적으로 앞에 있습니다마는 주님께서는 이제껏 해 오셨던 공생애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다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사건이 다가올 이 시점에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공생애의 의미를 재확인하시면서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다고 한다면,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 지금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시옵소서!' 영광을 챙기십니다.
그런데 창세전의 영광을 얘기하십니다.

이 점이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창세전에 있었던 영광이라는 것이 어떤 영광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광이라는 것,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요즘 여기저기 신문에도 나오더라고요, 아주 감격적인 이야기가 신문에 소개되었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해병대의 장교임관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졸업식이지요.
대통령이 참관하는 이 졸업식에서 딱 한 명이 대통령상을 받습니다.
육사에서 수석졸업 하는 생도에게 대통령이 상을 줍니다.
여기서 스물두 살 된 양 주희 소위가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의 이야기가 참 재밌고 감동이 있어요.

제주도에서 고3 때 초등학교 선생님이 될 꿈을 안고 공부하다가 육사생도들이 와서 육사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육사에 가서 나라를 위해 살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보기 좋게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예비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합격자 소집일 당일에 가지 못하면 합격이 무효가 되는데, 그 빈 자리로 예비합격자 명단에 있던 제주도에 있는 양 주희 양에게 합격통보가 간 것이에요.
그래서 당일 오후 8시에 육사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237명 신입생 중에서 237등 꼴찌로 들어간 겁니다.
꼴찌로 들어간 이 아가씨가 수석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그 딸 가진 부모가 부러워요, 내 자식은 아니지만 대견스럽고 얼굴도 예쁘더라고요.
예비자 명단에 있다가 들어가서 수석졸업 했다니까 더 감동이 있고, 남의 딸이라도 내 마음이 다 자랑스럽습니다.
이게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영광 아닙니까?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의 사전적인 의미는 빛나고 아름다운 명예입니다.

명예라는 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훌륭하다고 인정해주는, 그래서 자랑거리가 생기는 상태, 내 이름이 자랑스러워지는 상태, 이게 바로 영예요 명예입니다.
그리고 체감적인 의미에서 영광이라는 것은 기쁨입니다, 감격입니다, 행복입니다.
대통령상을 받을 때 양 주희 소위, 그 딸을 바라보는 엄마 아빠의 마음, 바로 그게 체감되는 영광입니다, 영광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기쁨이고 감격이고 지금 죽어도 좋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행복감입니다.

이게 체감적인 영광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영광이 주어지는 순간을 가만 살펴보면 전쟁에서의 승리, 경쟁에서의 승리, 승진, 합격, 수석졸업, 다양한 그런 경우를 예상할 수 있어요.
영광이라는 단어 속에 그런 게 들어있고, 그런 순간마다 체감적 영광의 의미는 언제나 기쁨이고 감격이고 지금 죽어도 좋다는 고백이 나오는 행복감입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이런 다양한 경우들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이 인간사회에서 내가 내 영광을 챙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그러므로 인간사회 안에서 영광이라는 말이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봐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대체 무슨 연관이기에 창세전에 가지셨던 영광,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그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이라는 얘깁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한계 안에서는 감이 안 잡히는 영광을 누리시고 가졌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지금 땅에 인간으로 계시면서 바로 이 순간에 '창세전에 있던 그 영광으로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그 영광 안에서 내가 기쁨과 감격과 행복 안에 가득 차게 해주세요!' 지금 이런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도대체 주님은 이 세상에서 양 주희 소위가 임관식 때에 가졌던 그런 영광 말고, 왜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영광을 찾으셨을까요?
이게 바로 원조(元祖)영광이라는 겁니다.
세상 안에서 우리는 영광을 찾고 있고, 영광을 누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영광을 누린 경험들도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은 사람들이 봐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게 아예 없는 곳에서 영광을 이미 누리셨다는 얘깁니다.
이게 바로 원조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창세 이전에 거하고 계실 것이지 왜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요?
아니 더 근본적인 질문은 대체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은 삼위일체가 되셔서 왜 이 세상이라

는 것 자체를 만드셨을까요?

창조의 마지막 목표는 인간이었습니다.
그 인간을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세상이 있기 전, 창세전에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 사이에서 있었던 그 영화로움, 천군천사들이 있던 그 하늘나라에서의 영광스러움, 주님은 하나님이 봐주고 계시기 때문에 영광스럽고, 하나님은 주님이 봐주시기 때문에 영광스럽고, 그 주님과 하나님 사이에서 성령님께서 주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교통케 하시면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그 영광이 기쁨이고 감격이고 감동이고 행복인데, 그 영광스러움이 너무너무 좋아서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면서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께서 결심을 하십니다.
'이 영광에 참여할 인격적 존재를 만들자!'
사랑이 넘치시므로, 기쁨에 넘치시므로, 감격에 넘치시므로 '이 영광스러운 기쁨과 감격과 행복에 참여할 인격체를 우리가 만들자!'라고 하셔서 만든 게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존재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 앞에서 누리던 주님의 영광, 주님이 봐주시면서 생긴 아버지의 영광,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할지 말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곳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원조영광에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라는 걸 결정하는 장소가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 안에서의 영광을 찾으라고 허락하신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기회의 장소입니다.
내가 창세전에 있었던 아버지하나님과 아들하나님과 성령님 사이에 있었던 그 원조 영광, 원조의 기쁨, 원조의 만족함, 원조의 행복함에 합류할 수 있느냐 마느냐의 여부를 결정짓는 기회의 장소지, 이 세상 안에서 사람들이 나를 봐주면서 생기는 그런 영광스러움을 찾는 장소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 영광스러움이 언제부터 생겼느냐?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뒤부터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사이비영광과 유사영광이 원조영광에 참여해야 될 인간의 마음을 다 이 땅에 묶어 둬버린 거죠.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 이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 아버지가 내 옆에 함께 거하심으로써 내 마음속에 생겼던 영광스러움, 그 영광스러움 때문에 이 지구를 만드신 거고, 지구에 있는 70억 인구를 만드신 겁니다,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 짓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양 주희 소위가 가졌던, 거기에 영광스러움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박 근혜 대통령, 여자 대통령이 여자 소위에게 대통령상을 수여합니다.
박 근혜 대통령도 여자 대통령으로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세상의 영광을 찾지 않으시고,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생겼던 그 영광스러움을 지금 이 땅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영생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과 주님 사이에서 있었던 영광스러움, 아버지가 나를 봐주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마음에 생기는 영광스러움, 그 기쁨과 행복의 극치, 또 하나님아버지께서도 주님께서 봐주고 계시기 때문에 생기는 그 아버지 마음속의 행복과 기쁨, 이 기쁨에 서로 참여하게끔 하기 위해서 세상과 인간을 만드셨고, 그 인간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아는 것이 대체 무슨 뜻일까요?
지난 금요일에 그런 말씀 나눴어요, 시저와 예수님의 승리를 비교했습니다.
시저가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라고 했습니다.
왔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본 것 중에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갖고 싶은 것들을 쟁취합니다.
이게 바로 영광이고 승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돈이면 돈, 권력이면 권력, 수석합격이면 수석합격, 이게 쟁취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데 사도바울이 로마서 8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므로 정말 죄송하지만 양 주희 소위가 수석졸업을 했다고 야단일 때, 그 자리에서 사도바울은 '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떠들어?' ' 아! 양 주희 소위가 꼴찌로 입학해서 수석으로 졸업하게 돼서 대통령상을 받게 돼서 참 감격스럽지 않아요?' '보이는 거야? 에이, 보이는 걸 누가 바래?'

'아, 박 근혜 씨가 이 나라에서 처음으로 여자 대통령이 되고, 아버지에 이어 딸이 대통령이 된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이 사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아, 그래? 보이는 거네? 보이는 걸 누가 바래?' 사도바울의 말입니다.

대통령이고 수석합격이고 수석졸업이고 사장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다 보이는 겁니까?

사도바울이 말합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래?'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걸 다 가지실 수 있었습니다, 보이는 모든 것 다 쥐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쥐십니다, 왜?

갖고 싶고 가질 만 한 것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제쳐두시고, 창세이전의 영광을 찾으신 것은 하나님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아버지께서 나를 봐주신다는 게 그 하나님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 중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으시고, 창세전의 영광을 이 땅에서 찾으신 겁니다.

이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아버지를 안다면 주님을 안다면 그 누구도 이 땅에서 보이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사도바울의 고백이에요.

'아, 누가 보이는 것을 바래? 이 사람아 정신 차려! 지금 자네가 말하는 게 보이는 걸 말하는 거야? 보이는 거면 나한테 말하지 마라! 그건 내가 바랄 바가 아니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도바울이 얘기합니다, '소망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면…' 이게 무슨 얘깁니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주님은 직접 체험하신 분이십니다.

창세전의 영광을 체험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그렇게 체험이 안 되고 확인이 안돼요.

그저 믿음과 소망 안에서 그것을 현실화하는 겁니다.

이것을 돕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믿음을 가질 때, 본 적이 없고 체험한 적이 없는 하나님나라의 창세전의 영광을 내 마음이 확증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힘입어서 창세전의 그 영광스러움 그것을 현실화하면서 이 세상에서 보이는 영광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아버지와 함께하는 천국이 나의 집인 것을 나의 자랑으로 삼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70억 인구가 삽니다, 주님 이후로만 쳐도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었습니다, 나도 죽을 것이고 여러분도 죽을 것입니다.
이 사는 동안 이 세상은 기회의 땅입니다,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을 소망하며 영광스러움을 추구할 시간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원조영광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결정짓는 거라는 얘깁니다.
그 결정짓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사건 아닙니까?
십자가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을 보입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영광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주님께서 경험하신 그 영광을 믿음으로 나의 유일한 소망으로 채택하는 사건이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입니다.
세상의 영광에 대해 죽고 하늘의 영광에 대해서만 살아나는 사건, 그게 십자가사건 아닙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일 때,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원조영광에 영원토록 참여할 수 있는, 영원한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끊이지 않는 그 삶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원조영광! 챙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유사영광, 사이비영광, 이 세상 안에서 만들어지는 영광들에 우리가 목매여 살지 않게 해주시

고,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도 한시도 잊지 않으셨던 그 원조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로 살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